

# 중국의 내외정책과 한반도

王 緝 思

北京大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制限하는 要因들은 다음과 같다. 즉 이 지역에서의 미소관계, 강대국들과 중국과의 관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치적·경제적 역동성, 대만·홍콩문제를 포함한 중국의 국내정치일정,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 발전 등이다.

## 1. 中國과 强大國들

1940년대 이래로 미국과 소련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 중심의 이해동맹체제와 소련 중심의 그것은 너무 거대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상대방의 적대시하는 공통의 이해라는 가정만으로는 더 이상 통제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 동북아시아는 강대국들의 영향력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아시아인들 자신의 지역이 되어 가고 있다.

최근 들어서 이전에 미국이 그럴 수밖에 없었듯이 크레믈린은 아시아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無力하다는 사실에 직면하고 있다. 소련에서는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주창한 정책들이 共産黨지배의 본질을 시키고 있다. 하지만 소련이 안정적인 다민족 사회의 건설 부강한 경제, 대중적으로 수용가능한 원칙들에 기반한 정책 등을 달성하기에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그때까지 소련은 동북아시아에서 비교적 낮은 外交的 地位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뜻한다. 즉, 다소 중국적인 의미에서,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화해, 모두는 아닐지라도 북방영토의 일부 반환을 포함할 일본과의 데탕트, 몽고와 북한의 발전에 대한 영향력의 약화, 공식적인 관계수립에 이를 수도 있을 남한에 대한 보다 화해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비록 워싱턴의 政策決定者들이 아시아에서 자신의 위치가 침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 역시 감소하고 있다. 남한의 반미민족주의, 갈수록 회미해지는 미일안보관계의 성격, 양국간의 경제적 마찰, 필리핀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능성 등 아시아지역 동맹국들과의 다양한 문제들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다.

북경의 관측통들은 이러한 조류들을 명확히 인식해 왔다. 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지정학적위치와 양강대국 사이의 외교적균형에 주로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북경의 지배적인 견해는 앞으로 십수년 이내에는 소련과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주요한 통상적인 군사위협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은 현재의 능력을 현저하게 증강시킴으로써 일본, 남한 그리고 아시아대륙의 어떤 곳에서도 물리적 능력을 심각하게 확장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소국경과 몽고로부터의 소련군대의 부분적 철수 발표, 소련 베트남관계의 냉각에 이은 1989년 5월 북경의 중소정상회담 이후 '소련의위협'은 중국 언론에서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다.

거의 동시의 시기에 1979년 양국이 외교관계를 설립한 이후 양국관계의 가장 어두운 페이지를 펼치면서 북경과 워싱턴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1949년 이후 줄곧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주의체제를 서서히 잠식할 미국의 理想과 價値에 의해 초래된 지속적인 정치적 위협에 관심을 쏟아 왔다. 1989년 4월에서 6월까지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민국의 반응은, 워싱턴이 共產主義政權을 전복하려는 정치적 세력의 중심이라는 중국의 믿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미국의 반응은 經濟的 制裁, 고위급 공식접촉의 중단, 그리고 공개적인 비난을 이어졌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의 지도자들 사이에 어두운 기억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국이 외세에 의하여 핍박받고 착취당하던 지난 시절을 회상했다. 그 결과 그

들은 현재 미국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것은 1972년 이전 시기의 잔재이다.

현재의 관계악화 이전에도 중국·미국의 전략적 상호관계는 재평가 되어져야 했다. 전략적으로 부시 행정부는 미국이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초에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중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 고르바초프하에서 새롭고 더욱 적극적인 강대국관계가 형성되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이러한 조류는 강대국들간의 해양경쟁의 감소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天安門事件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해의 감소, 소련에 대한 중국의 관심의 감소라는 시기와 동시에 일어났다. 공동의 전략적 이해가 그 중요성을 상실하게 되면 문화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 차이들이 나타나게 되며 그 간격은 메꿀수 없게 된다.

단기적인 면에서는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북경과 워싱턴 양자는 장기적 이해(interests)를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시킬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여타의 산업국들이 근대화를 위해 중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본, 선진기술, 경영경험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미국측에서 볼때는 미국의 정치가들이 현재의 중국사태에 대해 계속적인 불만을 표시할 지라도 아직은 주요한 戰略的 經濟的 利害가 남아 있다. 미국-바로 세계공동체-이 불안을 초래할 정도로 중국을 고립시키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에 따라 평양과의 관계가 유지되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북한이 양국의 대사관을 통해 공식적 접촉을 유지해 온 곳이 바로 북경이다.

미국의 전대통령인 리처드 닉슨이 최근 말했듯이, "만약 중화인민공화국과 미국이 지역문제들에 建設的 對應策으로 參與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평화는 유지될 수 없으며, 臺灣問題는 평화적으로 해결될수 없고 홍콩의 국민들은 자율적, 자본주의적·민주주의적 실체로서의 미래를 향유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 인도차이나에도 평화가 찾아 오지 못할 것이다.

몇몇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전략적인 고려는 일본의 역할이다. 그들은 현재의 미국 지도자들에게 미국이 일본의 시각에 아시아문제의 주요한 創出者로 남아 있기 위해서 중국을 필요로 한다고 상기시켜 왔다. 그들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일

본과 소련의 힘의 균형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지닌 강력하고 안정된 중국을 구상한다. 또한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일본의 앞으로의 역할에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지적되어 왔다. 만약 워싱턴이 세계적인 지위를 축소하고 있는 이때, 국내의 혼란에 휩싸인 중국정부가 심각한 소련의 지역군사력을 억지할 능력이 없다고 일본이 판단하게 될 경우, 일본은 더욱 가속적으로 재군비를 확장할 것이며 이는 중국, 한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지도자들을 오랫동안 괴롭힐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견해를 워싱턴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

현재 북경과 워싱턴간의 관계악화가 북경으로 하여금 소련쪽으로 접근하게 하는 특별한 압력이 되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소련의 급격한 정치적 변화를 고려하건대 中蘇政治關係의 강화 여지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북경은 소련과 동구에서 일어난 것과 유사한 정치적 통제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1989년의 중소정상회담에서 힘겹게 재개된 소련과 중국공산당간의 관계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소련은 중국의 경제발전에서 副次的인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상업·기술 그리고 문화적 관계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미국, 일본 그리고 서유럽은 소련을 멀리 뿌리치고 앞서 나아가고 있다. 결국 역사는 러시아와 중국사이에 상호존경과 성공적인 협력의 여지를 거의 남겨 주지 않았다. 양국은 상이한 歷史, 自己心象, 欲求, 目標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화인민공화국은 강대국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정책을 계속 구사할 것이다. 이 정책과 미소간 경쟁의 완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건설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2.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의 中國의 地位

1949년 이후 中國對外政策의 주요한 전제는 지리적 위치와 규모, 엄청난 인구와 풍부한 자연자원, 경제적 군사적 잠재력으로 인해 중국이 이 지역과 세계에서 주요한 행위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관념은 1982년 이후 중국이 강대국들간의 전략적 균형상태에 개입하여,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강화되어 왔다. 워싱턴과

모스크바 양자는 어느 한쪽이 중국과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경에 추파를 던져 왔다. 중국은 아시아국가들 사이에서 주요한 지도적 위치를 행사할 수도 있는 공식적 동맹의 형성을 추구해 오지는 않았다. 어떤 점에서, 중국의 1차적인 접근방법은 소극적인 것이나(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과 소련 양국의 지배적인 影響力 否認 反中國的인 아시아국가, 혹은 국가들의 출현방지), 경제적인 면에서 북경은 이지역의 발전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

주요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 대부분에서 각국 지도자들이 실용적-경험적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이데올로기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주요한 추세들 중 하나이다.

다른 한편, 국가들 사이에서 상호의존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지역에서는 민족주의가 유일하고 강력한 정치적 힘이 되고 있다. 그결과 지역국가들과 그 동맹국들간의 관계는 증대하는 유동성, 복잡성, 불확실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미국의 한저명한 아시아문제 전문가가 同盟에서 提携로의 움직임'이라고 정의한 일반적 조류에서 미소 양국은 모두 군사력의 효과적 사용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정책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생각은 1990년대에 발전할 것이다. 타국을 적이나 우방 둘 중의 하나로 간주하던 관념은 낡은 것임이 판명되었다. 미국, 소련, 일본 그리고 중국사이에 힘의 균형을 이룩할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다. 그러한 균형은 동맹에 의해서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타협의 여지, 상이성의 인정 그리고 다자적인 협상을 필요로 한다.

중국의 관측통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전통적인 외교적 수단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에 통합될 수 있는 능력에도 의존해야 하며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국제문제에 관한 중국의 전문가들 중 한 사람인 HuanXiang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급박성,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고 거듭 경고한 바 있다. 성공적인 도시산업개혁만이 중국의 국제시장 경쟁력을 증가시키고 세계경제에 더욱 밀접히 통합될 수 있는 길을 이끌어 줄 수 있다. 하지만 서방의 독자적인 연구는 중국 도시개혁의 큰 어려움을 강조하여, 중국의 대외무역과 투자에 대하여 배교적 조심스러운 진단을 내리고 있다.

몇 년 이내에 여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중국의 관계에 몇 가지의 쟁점영역이 나타날 것이다. 첫째, 중국이 국제경제에 더욱 깊이 참여할수록 이 지역에서는 문제점들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다. 둘째, 중국의 아시아 인접국가들 중 어느 하나라도 중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역적 힘의 균형을 추구한다고 믿어진다면 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의 다민족과 연관된 동남아시아의 민족적 갈등은 그 국가들과 중국과의 관계에 잠재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 넷째, 중국과 몇몇 인접 국가간에 육상국경, 영해와 도서에 대한 분쟁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섯째, 어느 아시아 태평양 국가가 대만의 독자적 행동에 동감하고 공식관계를 수립하려 한다면 북경은 틀림없이 분개할 것이다.

결국 오늘날과 같은 情報時代에는 여타 국가들의 국내정치가 중국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지역의 국제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몇몇 중국인들은 필리핀, 남한, 태국, 미얀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같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에서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민주주의와 독재반대를 향한 정치투쟁의 발전이 상응하여 일어났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실 베트남, 북한, 몽고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는 정치적 안정에 대한 욕구와 정치적 안정에 대한 욕구와 정치적 개방에 대한 요구 사이에 긴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 내부조건으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혁명 이후의 제2 3세대 지도자들이 이미 등장한 이러한 국가들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여 중국 지도자들은 이 전반적인 분위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이 국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평양과 서울을 포함한 여타 지역 국가들과 중국과의 상호관계에 핵심적인 것이다.

### 3. 중국의 국내일정

현재 중국의 경제와 정치는-앞으로 10년간도 그러할 것이다.-낡은 구조에서 새로운 구조로 전이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중국은 얼마나 오랫동안, 또한 어느 정도로 공산주의 우너칙과 개혁 대외개방을 조화있게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답변은 쉽지 않다. 개혁에 지원은 과거의 정치 경제체제의 현저한 단점들 경제개발에 대한 뚜렷

한 접근대안 부재, 그리고 개혁·개방정책이 가져올 분명한 이익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10여년 동안에는 개혁프로그램은 모든 이데올로기적 혹은 정치적 반대에 관계없이 중국의 일정에서 중심적 위치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하겠다.

현재 중국의 상황하에서 政治的 寬容과 知的 自由의 확대 요구에 대한 계속되는 압력이 대만과 남한에서처럼 조직적인 반정부운동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1990년6월이후 당은 더욱 엄격한 조치들을 채택했으며 정치적 다원주의의 수용이나 반대세력들의 다당제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 정치적 문제들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세력들의 다당제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 정치적 문제들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등소평이 정치무대를 떠난 이후에, 효과적인 집단지도체제나 탁월한 지도자 또는 적어도 둘 중의 하나가 필요하다. 앞으로 중국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집단주의와 合理性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은 카리스마적 지도력 없이 중앙의 권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개혁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외부세계에 자신을 더욱 개방하고 인근국가들에 대하여 온건한 외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장책이 된다. 계속되는 개혁은 타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확장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신뢰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에서의 경쟁력도 증가시켜 줄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통제된 경제·경직된 정치체제로의 후퇴는 대외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유연성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국내의 정치·경제적 어려움들이 개방의 전망을 저해하고 대외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것들은 여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경제관계를 확대하고 지역문제에 있어서 더욱 활동적인 역할을 할수있는 중국의 능력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여타 지역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지연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국 인민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안정유지요인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희망적이다.

#### 4. 統一問題

중국의 재통일-은 역사적으로 남겨진 대단한 중요성을 가진 愛族的과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만약 중국이 이를 달성한다면 강력하고 통일된 중국이 비로소 세계무

대에 등장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여타의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대만과 홍콩의 장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의 예로, 일본과 남한은 대만, 홍콩 양국과 중요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러한 관계를 유지시키기를 원한다. 두 국가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이해는 특히 본질적이다. 여러 가지 점에서 북경과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는 대만과 홍콩에 대한 중국의 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다.

최근 중국 대외관계의 특징인 實用主義 강화는 홍콩과 대만문제에 관한 중국의 태도에서 보여진 유연성에서도 잘 나타난다. 臺北에 대한 북경의 조치는 긍정적인 결과들을 낳았다. 두개의 중국간의 긴장은 최근들어 현저히 감소해 왔다. 1988년말 까지 약 15만명의 대만인들이 본토를 방문했다. 대만과 본토 사이의 間接貿易이 급속히 증가했다. 1988년의 교역량은 거의 25억 달러에 달했다. 본토에 대한 대만의 투자 역시 증가했다. 그러나 중국의 관리들은 대만의 장래에 관한 성급한 협상가능성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들은 대만이 본토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양측의 생활수준의 격차는 심각한 장애물로 인식되어 지고 있다.

대만의 民主化過程이 진전됨에 따라 親獨立勢力의 성장에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관심은 서서히 증가해 왔으며 양면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북경의 한 분석가는 본토에 대한 대만 당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대화없는 평화 통일없는 의사소통 전쟁 아닌 대치. 단절 아닌 분단. 이 모든 것은 비전쟁 비평화. 그리고 비독립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상태의 귀결점은 遲延政策’이다.” 중국의 민족적 재통일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다. 이는 조국통일의 사명은 완수되어야 하며 성취될 것이라는 40년 이상의 반복된 주장에 의하여 강조되어 왔다. 지역 국가들과 현재의 공식적 관계를 유지하고 반공식적, 혹은 준공식적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대만의 계속적인 노력에 북경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대만과 중국 본토와의 관계, 그리고 강대국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진전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중미관계에 있어서 대만문제는 조정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잠재적으로는 ‘시한폭탄’으로 남아있다.

첫째, 만약 대만이 독립을 향한 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북경 지도자의 개입(때로는 군사적 개입까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미국의 대응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그 경우 지역의 안정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 북경의 몇몇 불손한 미국인들이 독자적인 대만의 형성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홍콩문제의 국제화, 나아가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대만과 홍콩을 이용하기 위해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중국 통일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동북아시아국가들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이 중국문제의 민감성을 인정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韓半島에 대한 中國의 役割

한반도는 중국에게 커다란 안보적 의미를 지닌 지역이었다. 중국이 마지못해 개입한 한국전쟁은 중국 지도자들에게 이 방향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다. 그 곳에서의 계속된 긴장은 한반도의 미래에 불가피한 관련을 맺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심각한 방향을 끼쳤다. 한반도의 안정유지에 대한 중국의 강한 이해는 남한과의 경제관계 확대전망에 의하여 강화되고 있다.

사실, 많은 지표들은 중국과 남한간에 싹트기 시작한 간접무역관계가 이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PRK)과 중국과의 무역을 능가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적으로 사회체제와 이데올로기라는 면에 있어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간의 유사성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국내문제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든다 그에 따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접근은 중국의 국내외정책과 그 우선순위에 대한 매우 훌륭한 지표를 제공한다.

오늘날 중국은 지난 30여년 동안의 어떤 시기보다 한반도문제의 전개에 가시적·능동적으로 개입해 왔다. 현재 중국은 한국문제에 관련된 중요 세력들 중 가장 독특한 지위를 향유한다. 즉, 중국만이 남북한 양국과 진지하게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과 일본과도 밀접한 경제·정치관계를 향유한다. 비록 중국이 계속적으로 성실하게 북한문제를 워싱턴과 동경에 제기하고 있지만 자신의 고유한 장기적 政策目標을 추구하는 데 더 이상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러한 조치들 속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방어 의무의 제한도 포함된다.

최근 모스크바와 관계개선이 한반도의 안보전망에 대하여 중국이 낙관적인 견해

를 표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 중국인들은 평양이 미소 경쟁관계에 있어서 스스로 전략적인 볼모가 되어줄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은 소 북한 관계의 진전에 선언적인 지원을 표명해 왔다. 지난 몇 년 동안 북경은 소련측의 북한을 통과하는 항로개설과 북한 해안애의 해양기지 설치의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해 왔다.

1989년 6월 이후 북경과 평양은 한층 빈번히 접촉해 왔다. 중국과 북한 양국이 국내의 군력계승 문제에 깊이 집착해 있는 동안 소련은 서울과 접촉하기 위해 더욱 공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중미관계가 더 악화된다면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강대국들의 활동증가에 의해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남한에서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가능성을 덜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북경의 새지도자들이 북한에 대하여 수행해 왔던 억지적 역할을 중단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일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문제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적 관심으로 인해 안보적 경제적 고려를 무시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최근 몇달동안 중국 지도부는 국내외문제에 있어서 더욱 자신감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의 안정과 더불어 일본, 대만, 남한과의 경제관계가 서서히 발전해 왔다 중국의 외교적 성공은 인도네시아와의 공식관계 회복,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와의 외교관계 수립에 의해서 두드러지게 되었다. 북경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구국가들과의 관계가 점차 회복될 것이며, 그러한 방향으로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또한 바라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한국문제에 관한 접근에 변화를 보일 것이라 믿을 만한 이유는 거의 없다. 북경은 서울과 평양간의 대화전개를 진전한 발전으로 본다. 다른 한편, 중국은 '일개국가 양종제도' 접근법을 한국통일문제에 적용시키려는 북한의 연방주의 관점을 잘 이용해 왔다. 1985년초 등소평은, '일개국가 양종제도' 이념은 중국과 한국의 통일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했다고 전해진다. 다른 한편 서울 평양간의 관계 진전을 통해 중국은 남한과의 비공식 관계를 더욱 확대할 수있었다. 중국이 남한과 더욱 광범위한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분야는 평양과 서울간의 협상 진전에 주로 의존한다.

지난 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노태우 한국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회담이후 몇몇 관측통들은 소련은 서울과 외교적 관계를 맺기 위해 더욱 급

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러한 가능성으로 인해 중국이 그뒤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들은 모스크바가 북경보다 먼저 서울에 대사관을 개설할 경우 중국이나 정치, 경제 양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평가는 한국의 통일문제가 소련보다 중국에게 더욱 민감하며 북경이 한반도의 안전과 안정에 모스크바보다 더 큰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또한 평양과 북경간의 밀접한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지도자들은 서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북한 양측에 대한 소련의 태도보다 중국의 태도에 더욱 민감할 것이다. 중국정부 대변인은 1990년 7월, 중국은 남한과 무역사무소를 개설할 것이나 이 기관은 비공식적 성격에 불과할 것이라고 현명하게 말한 바 있다. 명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중국은 남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급속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중국의 전략적 구도에 있어서 항상 상당한 우선적 위치를 점해 왔다. 중국은 평양을 고립시키거나 북한이 불안하게 느낄 정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국내안정은 중국의 이해와도 연결되며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정책 중에서 한반도의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둘째 남한과 중국과의 형식적인 공식 접촉은 중국이 '두개의 한국'이라는 개념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며 이것은 나아가 대만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에게는 '두개의 중국'이라는 가능성을 강화해 주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대만 정치발전의 이러한 특히 미묘한 단계에서 중국은 한국의 상황과 대만의 위치 사이에 가능한 한 유사성을 극력 회피하려 할 것이다. 두 개의 단절된 국가라는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지향하는 모든 시도는 북한에게 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결코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지위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교차승인' 유엔에의 동시가입' 등과 같은 '두개의 한국'이라는 모든 공식에 대한 반대를 중국이 변경하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셋째, 중소관계가 양국 모두 각국의 이해가 항상 배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으므로 중화인민공화국은 소련이 한국문제에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